

통 지 서

수신인 강용원

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11, 101동 502호 (방배동, 서래아파트)

- 본인은 수일 전에 귀하로부터 전화로 김선웅씨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은 오민한입니다.
- 본인은 그날 귀하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고서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답변을 못하였는데, 그 후 김선웅씨를 만나서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까지 받은 터라 이렇게 서신으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.
- 귀하는 본인과 김선웅씨와의 계약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, 또 본인이 현재까지 [해드림(SUN-DREAM)] 상호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한 나머지 저에게 그런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.
- 본인은 김선웅씨와 계약할 당시에, 본인이 [해드림(SUN-DREAM)]의 영업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서는 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약정하고서 계약서에도 그 점을 기재했습니다. [해드림(SUN-DREAM)]은 법인이 아니라 김선웅씨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김선웅씨의 자재대금 채무를 대신 갚을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.
- 더구나 김선웅씨가 귀하로부터 자재 납품을 받은 것은 이미 오래 전이라 그 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을 것이고, 혹시라도 귀하와 김선웅씨 사이에서 시효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제3자인 본인에게까지 효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.

2024년 12월 27일

발신인 오민한

漢吳
印民

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



본 우편물은 2024-12-27

제14227호에 의하여

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

서울강서우체국장

